

SERMON PALM SUNDAY 2016

Philippians(빌립보서) 2:15-11, Luke(누가복음) 19:28-40

이번 종려 주일 행사는 정말 여러 방면들에서 놀랍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걸어서, 당나귀 또는 말을 사용해서 여행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군중들과 행진들이 있습니다.

앤작 기념일, 또는 국왕 방문을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해외 방문을 했을 때 교황의 자동차 주위에 몰려드는 군중들과 교황을 두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교황은 그의 회사로 가실 때 버스를 타거나 화려한 차가 아닌 작은 차로 다닙니다. 교황은 아마 큰 말보다는 망아지나 당나귀 취향의 사람입니다.

깃발, 종려나무나 무엇이든 흔들며 행복하게 환호하는 군중들에 의해서 대단한 흥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 드립니다. 물론 저는 우리 작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Pacific Highway 를 따라 걷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으며 또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젊은 여성이라면 너무 흥분해서 함성도 지르고 아이돌 (idol) 이 가까이 오면 기절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십대들에게는 최고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에게 그것에 가장 근접한 것은 런던에 있는 알버트 홀에 프롬 마지막 날 밤 콘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 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부르고 희망과 영광과 브리타니아여, 통치하라! (영국의 국가).

예수님께서 망아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날 아주 많은 감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흥분한 감정의 변덕스러운 본성은 몇 일안에 앙심으로 변하고 심지어 큰소리로 사형선고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증오가 쉽게 생기는지 봅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은 우리에게 더 넓은 관점으로 우주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만약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모든 영광과 평화는 위에 있고 우리가 밭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에서 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 에너지를 봅니다. 웬지, 예수님 사역의 역동성은 그를 환영 받는 왕으로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인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해서 너무도 오해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갈망과 예루살렘의 평화는 붕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망아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오해의 큰 부담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때때로 이것은 승리의 입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저의 상상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시는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초점이 맞추어 졌습니다.

희망에 참, 그가 사람들의 삶에 준 의미,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가르침, 상처의 치료, 그들 자신의 결론에 적합하고 잘못된 이상들로 뒤바뀌고 변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로 접근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슬퍼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지 알았었다면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눈에서부터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또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성전 파괴 후 유대교 시스템의 파괴와 폭력 사이의 사람들의 분산 그리고 죽음을 적었고 그것을 묘사하였습니다. 아마 저들 또한 경고하며, 슬픔과 고통을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돌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압니다. 그것은 그들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망아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가 진정 진리의 좁은 길을 따라 가고 있었으며 그는 아주 분명한 비전과, 분명하게 보기 위한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것 바로 전에,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체포 후 대제사장의 종의 귀 치료를 하나 더 행하십니다. 누가는 군중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며 길 한편에서 기다리는 눈이 먼 거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소리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거지는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는 한 가지 이상의 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점령된 원수를 저항 함으로 승리로, 또는 적어도 그가 그들에게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안전성을 주고, 다시 그들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허용하며, 그가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한 남자가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것들은 굉장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했던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해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망아지를 타고 온 겸손의 왕은 무엇을 의미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호를 광고하는 시대에 삽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과 관용구, 그것은 기대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하여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갈망하는지에 관하여 전달합니다. 이것들은 자주 어떤 삶의 문제들의 빠른

고정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웰빙, 종종 체중에 연관되고, 또는 담배 또는 알코올 그리고 약물 소비; 우리의 빛의 정도, 우리의 연금, 우리의 휴가의 필요성- 모든 종류의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그림으로서 우리가 편안한 가정들 그리고 어떤 기념 행사를 즐기며 식탁 주위에 앉아 있는 대 가족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이제 두 번째 크리스마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부활절 토끼로부터 많은 초코렐 뿐만 아니라 선물과 카드로 경쟁합니다. 우리는 거짓 희망에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많은 것 들에 또는 단지 잠깐 동안의 의미들에 둘러 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말씀을 감당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원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는 것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예수님을 가립니다. 어떻게 이분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왕으로서 환호를 받고,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구세주”라는 언어로 말하기도 익숙한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그는 항상 그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 소외된 자 들과 함께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서 내부자들만의 구세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 제도에 의해서 그들의 권력과 통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일어나고, 전해져 오는 눈 가리개를 쓴 것 입니다.

예수님은 망아지를 타고 그의 십자가의 길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불러 일으키고 지위를 높여줄 능력 있는 리더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정한 희망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모습으로 하여 전달한, 예수님은 거짓 희망을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 졌으며, 예수님은 줄곧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게서부터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떼어 놓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오해 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 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판단력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 이상한날 때문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 육신 하신 분, 우리인간의 삶에 모든 부분에 참여하셨던, 그는 깊은 인간 경험의 아주 깊은데 까지 친히 아래로 직접 내려 오심으로 우리 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해로 인한 모든 고통 가운데 서도 망아지를 타고 오시는지를 봅니다. 예수님 존재의 진실성과 실제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진실성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의 상실과 오해의 깊이에 까지 여전히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출생(요람)에서부터 십자가에 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 오늘(종려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것인지 그리고 이번 주 성 금요일과 부활절을 보내며 무엇을 상기해야 할 것 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 칠 것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환호하는 갈채나, 우리의 힘, 또는 우리의 완벽한 상상력, 우리의 지적인 찬성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길이 심지어 죽음의 대면에서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과 더불어 이해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당혹감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무엇을 보느냐와 관련이 있으며 우리자신의 삶의 사악함, 악행, 고통의 통증, 고립, 외로움, 그리고 오해 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던 우리는, 잘못된 환호를 통해 망아지를 타고 십자가의 처형을 향해서 오시는 형상, 우리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용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상처의 치유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은 깊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또는 이번 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부터 아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망아지를 타고 오시는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여정 또는 그의 목적으로부터 전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행과 어두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안으로 망아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해에 직면하는 정말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눈과 마음을 열 것을 선택하고 그분과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